

성명서

교회폐쇄법과 나쁜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산시 목회자와 성도대표들의 시국선언

작금의 대한민국은 법치가 사라지고 정치독재만 존재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이 무너졌으며, 헌법재판소도 경찰도 검찰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의 주요 관상인 교회 폐쇄법과 나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산시 목회자들과 뜻을 함께한 성도님들 대표들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상해인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20대에 왕정 대신 민주주의를 꿈꾸다가 반역죄로 옥고를 치루던 1904년, 간수 몰래 국가비전을 담은 '독립정신'이란 책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혹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마음가짐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0년 1월 26일, 국민들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청와대 청원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했고, 중국인 유학생들 입국을 차사 대응하듯 했습니다.

대만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대만 보건책임자는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역당국은 수백 명의 국민들의 죽어가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무너져 경제난을 당해 아무도 모르게 자살하는 와중에 K방역이 모범이라고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2월, 대만 총통은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 간에 상호 비난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국민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역실패의 책임자인 정부는 사과를 커녕, 그들의 태만으로 감염된 피해자인 국민을 비난하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니, 대만의 정치인들의 태도와 비교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 폐쇄법'이라고 비판을 듣는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의 개정안들은 합리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들에게는 생명같은 행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히 방역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인원을 제한합니까?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식당은 괜찮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백화점과 전철은 괜찮는데, 왜 유독 교회는 똑같이 마스크착용하고 예배드리는데 인원을 제한합니까?

미연방대법원은 일반시설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 교회는 50명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며 금지했습니다.

전체 감염자에서 예배시간 중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되었으며, 심각단계에서는 그러한 식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단계에서 운영을 할 경우, 그리고 감염되어 격리해야 할 경우, 그 기간동안 시설을 폐쇄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있지만, 징벌이나 보복 목적의 시설폐쇄 조치는 피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인 방역체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남발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몇가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걸쳐 논의가 되어 왔고, 장애훈련가 연령이러든가 비정규직이러든가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다가 2003년에서야 민간 분야에 합법화 했고, 1953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동성애자의 공무원 채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만든 주들이 있지만, 미국의 연방 차원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를 우상화 하는 정치세력과 인권단체라는 곳들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 개념을 추종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서구 반기독교적 좌파가 만든 사회

문화와 정치 문화를 모방하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많은 내용들은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주권을 박탈하고 외국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내용들도 있는데, 중국인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하지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시국에 참으로 위험한 법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반대자의 입을 막고,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이 법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게 될 악법입니다.

하나, 대만은 중국인입국금지로 확진자가 없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유입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차 금지하는 국민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길라차기하고 범죄의 주역은 국민으로 대한 행위에 문재인 정부는 사죄하라!

하나, 감염병예방법 개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게 한다는 법안들은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탄압 교회탄압이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폐기하라!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범법자로 몰아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독재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우리는 결사반대한다!

하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제정할 수 없어서 독이 든 사과처럼 성적지향 성별장제성이란 독을 넣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혼란으로 온 국민의 도덕과 윤리를 파탄에 빠뜨리려는 음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다. 헌법을 훼손하고 성경에 반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한다!

이상으로, 시국선언을 마지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08시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외 아산시 400교회 일동 아산시기독연합회(위원장 황기식 목사) 외 실행위원 일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입입생 모집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교무처로 문의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TEL: (051)803-3927
FAX: (051)581-0198
e-mail: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교무처로 문의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TEL: (062)952-7004
FAX: (062)953-5004
e-mail: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교무처로 문의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TEL: (041)567-3004
FAX: (041)575-3171
e-mail: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교무처로 문의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TEL: (043)274-2265, 273-2211
FAX: (043)237-2705
e-mail: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